

한·일 문학상 비교

- 출판사 문학상을 둘러싼 이슈와 화제 -

김 난 주*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일 양국의 출판사 문학상을 둘러싼 이슈와 운영 실태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는 공히 수백 개에 달하는 문학상이 있지만, 문단과 문학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유력 문학상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상들이다. 한국의 경우, 문학상 제도를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공정의 문제로 집약된다. 특히 출판사들이 자사에서 출간한 작품에 자사 문학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일본 문학상 역시 이러한 독과점과 편향성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분게이슌주(文藝春秋)의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을 위시해, 고단샤(講談社), 슈에이샤(集英社), 신초샤(新潮社) 같은 거대 출판사가 운영하는 유력 문학상의 '자사 수상비율'은 대부분 4~50%에 육박한다. 그런데, 독점과 불공정성이라는 출판사 문학상의 문제점에 대한 양국 문화계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 문단이 문학상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 줄기차고 절박한 비판을 지속해 왔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출판사 문학상의 상업적 속성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문학상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보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문학상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문학상을 대하는 일본 미디어의 보도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후보작 선정과 수상작 발표,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시상식, 작가 개인의 신상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보도 열기를 통해, 문학상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과 문학상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았다.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문학상이 대중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참고할 대목이다.

[주제어] 한국 문학상, 일본 문학상, 출판사 문학상, 나오키상(直木賞), 아쿠타가와상(芥川賞)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매스컴과 일본 문학상 |
| II. 대형 출판사와 문학상 | V. 나가며 |
| III. 출판사 문학상의 독점 논쟁 | |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연구전담 조교수 / nanju21@hanmail.net

I. 들어가며

2022년 1월 19일, 오후 5시 50분. 166회를 맞은 <아쿠타가와상(芥川賞)>과 <나오키상(直木賞)> 수상작 발표 소식이 NHK 뉴스 속보를 탔다. 이 시각 동영상 스트림 니코니코(ニコニコ)는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수상 작가들의 기자회견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중계했다. 후보작 선정에서부터 수상작 발표, 시상식이 열리는 두 달여 동안 일본의 각종 TV 프로그램과 신문·잡지, 유튜브 방송이 가세한 미디어들은 이 두 문학상 이야기로 떠들썩하고, 전국 서점에서는 ‘수상작’ 피지를 새로 두른 책들이 독자를 기다린다. 1년에 두 차례 일본 문화계가 이 두 문학상으로 활기를 띤다.

<아쿠타가와·나오키상> 수상작이 발표되기 며칠 전인 1월 5일 한국에서는 제45회 <이상문학상> 수상작 발표가 있었다. ‘한국 중·단편 소설에 수여되는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아쿠타가와상>과 비견되는 이상은 배출 작가의 면면, 전통과 인지도 측면에서 한국 문학상의 대표주자급이다. 그런 <이상문학상>의 수상작 발표 소식이 한 인터넷 신문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되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이상문학상이 2022년 제45회 대상을 공개했다. 이번 선정작은 손보미 소설가의 ‘불장난’이다.”¹⁾ 뒤이어 22년 3월 현대문학사는 코로나 여파로 시상식을 생략한 채 “제67회 <현대문학상>의 상패와 상금을 수상자분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소식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리고 그 몇 달 전, 2021년 11월에 있던 제52회 <동인문학상> 시상식은 ‘친일문인 김동인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을 폐지하라’는 반대 집회 속에 개최되었다.²⁾ 각각 54년, 67년, 52년의 전통을 이어오며 ‘3대 문학상’으로 꼽혀 온 한국 문학상들의 현주소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학상은 249개라고 한다.³⁾ 90년대 전성기에 접어든 한국 문학상 제도는 숫자 면에서는 2018년 448개⁴⁾로 정점을 찍은 후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생겨난 문학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국 문학상 제도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확실하다. 단적으로 앞서 본 <아쿠타가와상>이나 <나오키상>의 모습과 비교해도 한국 문학상의 분위기는 너무 가라앉아 있다. 도대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일본의 문학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한국 문학상의 운영 실태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것은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는 공히 수백 개에 달하는 문학상이 운영되고 있지만, 양국 모두 문단과 문학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유력 문학상은 대부분 대형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상이기 때문

1) 이민우, 「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선정작 발표. 심사제도 개선 이루어져」, 『뉴스페이퍼』, 2022.1.5.

<http://www.news-paper.co.kr>(검색일 : 2022.4.30).

2) 김석, 「조선일보는 친일문인 기리는 동인문학상 폐지하라」, KBS NEWS, 2011.11.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4939&ref=A>(검색일 : 2022.5.30).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정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문학상 운영실태 조사 연구개요」, 2021.12.

<file:///C:/Users/DKU/Downloads/>(검색일 : 2022.5.30).

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의 자료.

이다. 본고에서는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한·일 문학상들의 실태를 비교 분석해 보고,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사례를 통해 문학상의 의미와 운영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 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 문학상 제도와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있었다. 그중에는 외국 문학상, 특히 일본 문학상과의 비교 연구⁵⁾도 있었으나, 간략한 소개 정도로 심도 있는 연구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본 문학상의 현황 분석에 천착한 연구로는 김난주의 〈서점대상(本屋大賞)〉에 관한 연구⁶⁾가 있지만, 본고와 같은 한·일 문학상의 비교 연구는 아니다. 현재 일본에는 수백 개가 넘는 문학상이 존재하고, 이들 중 몇몇 문학상은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호응 속에 문화계와 출판계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일본 문학상의 이러한 성공 사례를 파악하는 것은 한국 문학상 운영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II. 대형 출판사와 문학상

한국과 일본 문학상의 주요 운영 주체는 출판사와 언론, 지방 자치단체와 문학단체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문단에서 영향력이 있고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주요 문학상은 거의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한다. 본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문학상이 출판사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유력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학상들을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한국 문학 출판사의 양대 축으로 역할 해 온 창비, 문학과 지성사, 1990년대 후발주자로 등장해 현재 단행본 출판사로는 부동의 매출 1위를 달리는 문학동네, 그리고 한국 문학의 걸출한 작가들을 배출해 온 현대문학사, 문학사상사, 민음사. 이들은 모두 한국 현대 문학의 성장을 견인하며 문학서적 출판을 주도해 온 곳이자, 유력 문학상의 운영사이기도 하다. 현재 이들 출판사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학상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주요 출판사와 문학상】 () 안은 문학상 제정 연도

출판사	문학상
창비	만해문학상(1973년), 신동엽문학상(1982년), 백석문학상(1997년), 창비신인문학상, 창비청소년문학상, 창비어린이신인문학상, 창비교육성장소설상, 영어덜트소설상.
문학동네	문학동네젊은작가상(2010년), 문학동네소설상, 문학동네신인상,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문학동네시문학상, 문학동네청소년문학상
문학사상사	이상문학상(1977년), 소월시문학상(1989년), 김환태평론문학상(1989년), 청소년문학상, 삼성문학상 ⁷⁾

5) 이승하, 「문학상이 공정하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발전은 없다-아쿠타가와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실천문학』 2019년 봄호(통권 131호), 2019, 19~23쪽.

6) 김난주, 「일본 문학상 〈서점대상(本屋大賞)〉-성공과 한계,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즐거움-」, 『인문학연구』 12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29~51쪽.

출판사	문학상
문학과지성사	문지문학상(2010년), 문학과사회신인문학상(2000년), 마해송문학상(2004년)
민음사	오늘의작가상(1977년)
현대문학사	현대문학상(1956년)

위 표를 보면, 문학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문학상이 수적인 면에서도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현재 창비가 8개로 가장 많고, 문학동네 6개, 문학사상사 5개, 문학과 지성사가 3개의 문학상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창비, 문학동네, 문학사상사가 운영하는 문학상의 영역을 보면 시, 소설, 평론 같은 순수문학 장르는 물론 대중오락 문학과 청소년 문학, 아동문학 등 전 방위에 걸쳐 있다는 사실도 눈에 띈다.

현재 한국에는 300여 개에 가까운 문학상이 존재하지만, 사실 이 중에서 독자들에게 사랑 받고 문단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문학상은 그리 많지 않다. 꼽아 보자면,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오늘의작가상〉, 〈만해문학상〉과 〈신동엽문학상〉, 〈백석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문학동네젊은작가상〉, 〈대산문학상〉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 이 중에서 1955년 사상계사(思想界社)가 제정하고 지금은 조선일보사가 운영하는 〈동인문학상〉과 중앙일보사의 〈황순원문학상〉, 그리고 교보문고 산하 대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산문학상〉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출판사에서 제정하고 운영하는 문학상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대표 문학상들이 몇몇 대형 출판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문학상의 경우는 어떨까? 다음은 현재 일본의 거대 출판사가 주최하거나 주요 후원사로 있는 문학상 목록이다.⁸⁾

【일본의 주요 출판사와 문학상】 () 안은 문학상 제정 연도

출판사	문학상
고단샤 (講談社)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 1941), 노마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賞: 1979), ⁹⁾ 군조신인문학상(群像新人文学賞: 1958), 고단샤아동문학신인상(講談社児童文学新人賞: 1959), 요시카와에이지문학상(吉川英治文学賞: 1967), 요시카와에이지문학신인상(吉川英治文学新人賞: 1980), 노마문예번역상(野間文芸翻訳賞: 1989), 메피스토상(メフィスト賞: 1994), 소설현대장편신인상(小説現代長編新人賞: 2006), TBS·고단샤드라마원작대상(TBS·講談社ドラマ原作大賞: 2007), 군조신인평론상(群像新人評論賞: 2015), 요시카와에이지문고상(吉川英治文庫賞: 2016), 노마아동문예상(野間児童文芸賞), 고단샤에세이상(講談社エッセイ賞), 화이트하트신인상(ホワイトハート新人賞)

7) 삼성문화재단과 공동 주최.

8) 1922년 교육전문 출판사로 시작한 쇼가쿠칸(小学館), 1945년 가도가와쇼텐(角川書店)으로 출발한 가도가와(KADOGAWA)는 현재 일본출판업계의 빅4로 꼽히는 거대 종합 출판사이다. 이들 출판사 역시 각종의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판타지 오락 소설, 라이트 노벨, 만화 부문에 주력하고 있어 본 집계에서는 제외했다.

9) 1941년 시작한 노마문예장려상(野間文芸奨励賞)이 전신.

출판사	문학상
신초샤 (新潮社)	신초신인상(新潮新人賞: 1968), 가와바타야스나리문학상(川端康成文学賞: 1974), 닛타지로문학상(新田次郎文学賞: 1982), 미시마유키오상(三島由紀夫賞: 1987), 일본판타지노벨대상(日本ファンタジーノベル大賞: 1989), 아마모토슈고로상(山本周五郎賞: 1988), 하기와라사쿠타로상(萩原朔太郎賞: 1993), 고바야시히데오상(小林秀雄賞: 2002), 신초다큐먼트상(新潮ドキュメント賞: 2002),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R-18 문학상(女による女のためのR-18文学賞: 2002), 일본의료소설대상(日本医療小説大賞: 2011), 신초미스터리대상(新潮ミステリー大賞: 2014), 가와이하야오모노가타리상(河合隼雄物語賞: 2013)
분게이슌주 (文藝春秋)	아쿠타가와류노스케상(芥川龍之介賞: 1935), 나오키산주고상(直木三十五賞: 1935), 기쿠치칸상(菊池寛賞: 1953), 분가쿠카이신인상(文学界新人賞: 1955), 마쓰모토세이쵸상(松本清張賞: 1993), 올요미모노역사시대소설신인상(オール読物歴史時代小説新人賞: 2021) ¹⁰⁾
集英社 (슈에이사)	소설스바루신인상(小説すばる新人賞: 1988), 시바타렌자부로상(柴田錬三郎賞: 1988), 가이코다케시논픽션상(開高健ノンフィクション賞)

슈에이사(集英社)와 고단샤(講談社)는 각각 1926년과 1909년에 창업해, 현재는 일본 출판업계 매출 1, 2위를 달리는 종합 출판사이다. 신초샤(新潮社)는 1896년 창업한 신세이사(新聲社)가 전신으로 문예서적 부문에서 업계를 리드하는 곳이다.¹¹⁾ 또한 1923년 문인 기쿠치칸(菊池寛)이 설립한 분게이슌주(文藝春秋) 역시 매출 10위권 안에 드는 전통의 출판사이다. 위 목록을 보면 현재 고단샤 15개, 신초샤 13개, 분게이슌주 6개, 슈에이사가 3개의 문학상을 주관 내지 후원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형 출판사들이 문학상 운영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학상의 양적 측면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들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상들이 실제 일본 문단과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예를 들어, 분게이슌주가 운영하는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이 일본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참고로,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을 주최하는 단체는 분게이슌주가 설립한 일본문학진흥회(日本文学振興会)이다. 하지만 심사 대상 작품목록을 뽑는 것에서부터 후보작 선정에 이르기까지, 또 심사위원 관리와 시상식 운영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제반 업무를 분게이슌주의 편집부가 담당한다. 이 상들의 운영 주체를 출판사 분게이슌주로 보아도 무방한 이유다.

한편, 고단샤의 <요시카와에이지문학상(吉川英治文学賞)>과 신초샤의 <아마모토슈고로상(山本周五郎賞)>은 일본 대중요락 소설의 최고봉으로 꼽힌다. 또한 분게이슌주의 <분가쿠카이신인상(文学界新人賞)>(분게이슌주 문예지 『文学界』가 주최), 고단샤의 <군조신인문학상(群像新人文学賞)>(『群像』 주최), 슈에이사의 <스바루문학상(すばる文学賞)>(『すばる』 주최), 신초샤의 <신초신인상(新潮新人賞)>(『新潮』 주최)은 가와데쇼보신사(河出書房新社)의 <분게이상(文藝賞)>(『文藝』 주최)과 함께 일본 순문학 5대 문예지가 주관하는 신인 공모상으로, 오랜 세월 신인 작가들의 최고 등용문 역할을 해 왔다. 그 밖에 <노마문예상(野間文芸賞)>, <노마문예신인상(野間文芸新人賞)>, <가와바타야스나리문학상(川端康成文学賞)>, <미시마유키오상(三島

10) 1952년 창설된 올요미모노신인상(オール読物新人賞)이 전신. 이후 88회부터 올요미모노추리소설신인상(オール読物推理小説新人賞)을 거쳐, 2021년 현행의 <올요미모노역사시대소설신인상>으로 리뉴얼되었다.

11) 일본 출판사의 매출 정보는 『出版業界ランキング』, 『業界動向』 참조. <https://gyokai-search.com/4-hon-uriage.htm>

由紀夫賞), 〈올요미모노신인상(オール読物新人賞)〉, 기쿠치칸상(菊池寛賞) 역시 작가라면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주요 문학상이다.

이렇게 유력 문학상의 대부분이 사업규모와 매출실적 면에서는 물론, 100년을 넘나드는 역사를 가진 거대 출판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말하면 일본 문학상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몇몇 특정 출판사들에 의해 주요 문학상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결국 양국 문학상 제도의 불공정을 낳는 공통적이면서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Ⅲ. 출판사 문학상의 독점 논쟁

앞서 보았듯이 한국과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은 거의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출판사가 문학상을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이슈가 있다. 다름 아닌 공정의 문제인데, 말하자면 자사 출간 작품에 상을 주고 싶은 욕망을 운영사가 제어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출판 자본의 문학상 독점과 이로 인한 자사 작품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창비’의 대표 문학상인) 신동엽문학상, 만해문학상, 백석문학상의 최근 10년간 수상자 자료를 정리해 보면 수상작 가운데는 창비 출판물이 월등히 높다.¹²⁾

지난 10년(2010~2019) 사이에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 소설 부문 수상작과 수상작 수록 지면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수상작 중 상당수가 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가 출간하는 문예지를 통해 발표된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다.¹³⁾

문학사상사에서 이상문학상 주관하시는 분들은 제발 자기네 문예지에 발표된 소설을 어떻게든 챙겨려는 관행부터 버리라. …… 2010년 이후 출간된 각종 문학상 수상 작품집의 발표 지면을 일일이 확인해서 통계를 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 문예지 비율이 높을 수 있는가.¹⁴⁾

인용문에서 언급된 문학상들은 자타공인 한국의 대표적 문학상들이다. 인용문은 이런 문학상을 주관하는

12) 홍성희, 「이름과 이름과 이름 들」, 『문장웹진』 2021년 2월호.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7787>(검색일 : 2022.3.1).

13) 정진영, 「깜깜이 문학상 그들만의 리그인가」, 『문화일보』, 2020.1.13.
<http://www.munhwa.com/news/>(검색일 : 2022.3.1).

14) 보관, 「이상문학상 심사에 문제 있어. 과도한 자사 문예지 밀어주기부터 수상에 대한 비판까지」, 『뉴스페이퍼』, 2021.01.09.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55>(검색일 : 2022.4.6).

출판사들이 자사 발행 작품에 상을 몰아주는 관행을 지적하며 성토했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질적 관행의 중간 고리로 문학상 주관 출판사가 발행하는 문예지를 지목한다. 즉, 많은 문예 출판사들은 문학상과 문예지를 함께 운영하는데, 이 때 자사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거나 자사 문예지에 실렸던 작품에 수상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사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과, 자사에서 출간된 단행본에 자사가 운영하는 문학상을 몰아주는 구조야말로 한국 문학상 제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물론 모든 출판사 문학상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¹⁵⁾ 대형 문학출판사가 주관하는 유력 문학상의 상당수가 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 먼저, <아쿠타가와상>의 역대 수상작 중, 분게이슌주 발행 문예지에 발표된 작품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았다. 일본 최고 권위의 신인문학상으로 평가받는 <아쿠타가와상>은 문예지나 동인지에 발표된 신진작가의 중·단편에 수여되는 상이다. 그런데 수상작을 보면 일본의 5대 순문학 잡지로 꼽히는 『신초(新潮)』(신초사), 『군조(群像)』(고단사), 『분가쿠카이(文学界)』(분게이슌주), 『분게이(文藝)』(가와데쇼보신사), 『스바루(すばる)』(슈에이샤)에 발표되었던 작품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단연 분게이슌주의 『분가쿠카이』 발표작이 많다. 일례로, 2000년 상반기(123회)부터 2021년 하반기(166회)까지 22년 동안의 수상작을 살펴보니, 총 54개 수상작 중 20개 작품, 즉 37%가 『분가쿠카이』에 발표되었던 작품이었다.¹⁶⁾ 이는 이 상의 초기시절부터 이어져 온 현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관행에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기도 한다. 즉, 최근 5년간 총 13개 수상작 중 『분가쿠카이』 발표작은 두 작품뿐이었다. 이것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분게이슌주 측의 노력의 산물인지, 또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자사 문예지 게재작에 수상을 몰아주는 관행은 <나오키상>도 마찬가지다. 상의 제정 초기인 1회에서부터 20회, 즉 1935년부터 1944년 하반기 수상작을 보면 수상작 총 19개 작품 중 9개 작품이 분게이슌주 문예지인 『올요미모노(オール読物)』, 『분게이슌주(文藝春秋)』, 『분게이요미모노(文藝読物)』에 게재된 작품들이다. 특히 『올요미모노』 게재작이 6개 작품에 달했는데, <나오키상>의 『올요미모노』 편중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이어져, 한때 『올요미모노』에 실리지 않으면 나오키상을 받기 어렵다거나, <올요미모노신인상> 수상이 '나오키상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¹⁷⁾ 참고로, 『올요미모노』는 분게이슌주에서 1930년부터 발행해 온 월간 대중소설 잡지로, 앞서 본 분게이슌주의 순문학 잡지 『분가쿠카이』와 쌍벽을 이루는 문예지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나오키상>의 심사 대상이 중·단편에서 장편 혹은 단편집으로 바뀌면서 『올요미모노』 같은 문예지의 영향력은 사라진다. 대신 분게이슌주에서 발행된 단행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2000년 상반기에서 2021년 하반기에 이르는 22년 동안 전체 수상작 중에서 분게이슌주 발행 작품 비율은 56대 25로, 45%를 차지했고,¹⁸⁾ 이 비율은 최근까지 변함이 없다. 이러한 자사 쏠림 현상은 애초에 <아쿠타가와상>

15) 예를 들어 박은혜는 문학동네가 운영하는 <젊은작가상> 운영 실태를 분석한 논문에서, 문예지 『문학동네』 발표 작품의 수상 비율이 낮음을 증명했다. 박은혜, 「문학상의 새로운 진화와 '젊은 작가상」, 『리터러시연구』 11: 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439~468쪽.

16) <아쿠타가와상> 역대 수상작 일람은 「直木賞のすべて」 사이트의 역대수상작 일람 참조.
<https://prizesworld.com/naoki/wins/>(검색일: 2022.3.7).

17) 川口則弘, 『直木賞物語』, バジリコ, 2014, 388쪽.

이나 <나오키상>의 후보작 선정에 분게이슌주의 편집부가 담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본선에 올라 가면 결과는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후보작으로 올라간 5~7개 작품 중 과반수 정도가 분게이슌주의 작품이라면, 자사 작품 수상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음, 고단샤의 <요시카와에이지문학신인상(吉川英治文学新人賞)>. 1980년에 창설된 이 상은 2022년 현재 43회 수상자를 배출했다. 해마다 신문, 잡지, 단행본 등에 우수한 소설을 발표한 작가 중 가장 장래성이 높은 신인작가에게 증정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지만, 실제로는 중견 이상의 작가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문단뿐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도 높은 이 상의 역대 수상작을 확인해 보니, 총 62개 수상작 중 30개 작품이 고단샤에서 출간된 작품이었다. 50%에 육박하는 비율이다. 이밖에도 같은 고단샤의 <노마문예상>, 슈에이샤의 <시바타렌자부로상>, 신초샤의 <아마모토슈고로상>과 <미시마유키오상> 등 거대 출판사 문학상의 지난 20년간 '자사 수상비율'은 공히 4~50%에 육박한다.

그러면 이것을 출판사가 아닌 곳에서 운영하는 문학상과 비교해 보자. 수상작 판매 부수 면에서 전통의 <나오키상>을 능가해 온 <서점대상>, 그리고 <아쿠타가와상>과 함께 순문학 문학상의 쌍벽을 이룬다는 <요미우리문학상(読売文学賞)>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서점대상>은 2004년 전국 서점원들로 결성된 '서점대상 실행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서점원들이 가장 팔고 싶은 소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해 출판계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이다. 또한 <요미우리문학상>은 1949년 패전을 딛고 일본 문예부흥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요미우리 신문사가 제정한 상으로, 2021년 73회를 맞이한 전통의 문학상이다.

<서점대상>의 경우, 1회 2004년부터 19회 2022년까지의 수상작을 보면, 총 19작 중 신초샤 4작, 고단샤 2작, 가도가와(KADOGAWA) 2작, 분게이슌주 2작에 이어 후소샤(扶桑社), 후타바샤(双葉社), 쇼가쿠칸(小学館), 고분샤(光文社), 겐토샤(幻冬舎), 포푸라샤(ポプラ社), 도쿄소겐샤(東京創元社), 주오고론신샤(中央公論新社), 하이카와쇼보(早川書房)에서 각각 한 작품씩 나왔다. 또 <요미우리문학상>의 경우, 2000년 52회부터 2021년 73회까지 수상작은 신초샤 9작, 분게이슌주 5작, 고단샤 4작, 슈에이샤 3작에 이어 아사히 신문사(朝日新聞社)와 가와데쇼보신샤가 각각 한 작품씩 수상작을 냈다. <요미우리문학상>의 경우, 신초샤 출간 작품이 많은 편이나 자사 출판과는 상관 없이, 두 상 모두 비교적 고른 출판사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통계를 놓고 보면 확실하게 출판사가 운영하는 문학상에 자사 수상율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 수상작 선정에 문학상을 주관하는 출판사의 입김이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학상이 독과점과 불공정이라는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출판사 문학상의 폐단에 대해 한국과 일본 문단의 반응, 혹은 비판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연구자와 작가들이 한국 문학상, 특히 출판사 문학상의 불공정성과 상업주의를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다.¹⁹⁾ 앞서도 보았듯이 문학상을 통해 자사 문예지 출신 작가를 띄워 주고, 자사 발행 작품에

18) 특히 131회에서 135회까지는 7개 수상작이 연달아 분게이슌주에서 나왔다.

19) 이권우, 「문학상 둘러싼 잡음 왜 끊이지 않나」, 『출판저널』 94, 1991, 14~15쪽; 김연수, 「상업주의 그늘 짙게 드리운 문학상과 작가」, 『출판저널』 253, 대한출판문화협회, 1999, 12쪽; 이동희, 「문단의 권력 또는 공해」, 『현대소설연구』 18, 한국현

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한 문단의 비판은 울분에 가깝고, 이런 카르텔에 절망한 일부 작가는 출판사 공모 문학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²⁰⁾ 급기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최근 「공정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문학상 운영실태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이런 연구가 그것도 공공 기관에 의해 진행된 배경에는 한국 문학상 제도에 대한 오래된 불만과 개선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출판사 문학상 역시 독과점 문제와 편향성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그러한 현실을 문단 안팎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기에 그 비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 내지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논조가 보이지 않는다. 문학상을 다룬 책이나 기사, 좌담 내용을 보면 문학상의 문제를 일종의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는 넘쳐나는 문학상 관련 비판 논문을 현재의 일본 학계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여기에는 출판 권력과 출판사 문학상의 상업적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문학상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접근하는 인식과 태도가 엿보인다. 다시 말하면, 한국 문학계가 문학상에 엄격하게 요구하는 공정성이나 예술지향성 같은 엄숙주의가 일본 문학상 세계에서는 흐릿하다는 것이다.

IV. 매스컴과 일본 문학상

한·일 문학상 제도는 문학시장의 침체, 출판사 문학상의 편파성 논란과 상업주의 같은 비슷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출판사 문학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희미하다. 〈나오키·아쿠타가와상〉 같은 유력 문학상들은 여전히 문단에서의 권위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고, 여기에 더해 〈서점대상〉, 〈넷소설대상(ネット小説大賞)〉 같은 새로운 문학상이 등장해 문학시장에 활기를 더한다. 한국 문학상의 침체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이다. 그렇다면 일본 문학상의 이러한 건재함, 권위와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하,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상을 향한 일본 사회의 관심과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87년 동안 166회의 수상작을 낸 〈아쿠타가와상〉과 〈나오키상〉도 그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아 왔다. 이제 시효가 다하고 한물 갔다는 식의 비판론이 주기적으로 등장했고 많은 비평가들은 두 상이 실체보다 과도하게 평가된다고 경계했다. 하지만 수상작이 발표될 때마다 작가들은 여전히 환호하며 감격에 울먹이는 모습을 연출하고, 소설시장의 고전 속에서도 두 상은 때때로 놀랄만한 판매고로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은 팔린다’는 믿음을 전파한다. 2015년 〈아쿠타가와상〉의 『불꽃(火花)』이 수상 직후 40만 부를 증쇄한 이래 누적 발행 부수 320만을 훌쩍 넘긴 사실은, 이 상의 위상과 상품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대소설학회, 2003, 105~120쪽; 이승하, 「문학상이 공정하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발전은 없다 - 아쿠타가와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앞의 논문, 19~23쪽; 정진영, 「깜깜이 문학상 그들만의 리그인가」, 앞의 기사.

20) 신에 작가 손아래의 한 좌담에서 출판사가 운영하는 공모 문학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정 외,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짧은 작가 좌담), 『실천문학』 119, 실천문학사, 2015, 15~82쪽.

한국 문학상의 침체를 목도하는 우리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 뉴스다. 그렇다면 이 두 상이 오늘날에도 그 힘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심지어 심사위원들까지 나서서 상이 과대평가되는 현상을 우려할 정도로 문단과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 두 상에 대한 매스컴의 태도와 그것이 독자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해마다 두 차례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계절이 돌아오면 후보작 선정과 수상작 발표, 시상식 날에 맞춰 수많은 보도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후보작과 수상작 작가들은 방송 출연이나 신문·잡지 인터뷰로 바빠진다. 특히 수상작 발표가 NHK 뉴스 속보로 다루어지는 사실은 놀라운데, 최근에는 이러한 열기가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두 상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은 ‘보도전쟁’ 혹은 ‘매스컴 소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뜨겁다.

그런데, 오랜 세월 두 상의 오타쿠를 자임해 온 가와구치 노리히로(川口則弘)씨는 이 두 상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이 작품보다는 작가 개인의 화제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평소보다 어린 작가 혹은 나이 많은 작가, 출중한 외모를 지닌 ‘비주얼계’ 작가, 주부 작가, 공무원 작가, 연예인 출신 같은 화제성을 지닌 작가가 후보군에 오르면 TV 뉴스나 예능 프로그램, 신문, 잡지, 심지어 스포츠지까지 달려들어 취재를 하고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1년 126회 〈나오키상〉 수상은 아마모토 이치리키(山本一力)의 『붉은 하늘(あかね空)』이 차지했는데, 그때까지 일반 독자에게는 무명의 존재였다. 그런데 수상 발표 기자회견장에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온 작가의 수수한 모습에 더해,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세 번의 결혼, 사업 실패, 막대한 부채 같은 인생스토리가 매스컴에 절호의 화제를 제공한 것이다.²¹⁾ 독자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단행본 판매고가 올라간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2003년도 하반기 130회 〈나오키상〉은 에쿠니 가오루(江国香織)와 교코쿠 나쓰히코(京極夏彦)라는 두 스타작가의 공동 수상으로 화제를 뿌렸다. 그러나 이 때 매스컴의 시선은 열 아홉 살의 나이로 〈아쿠타가와상〉 최연소 수상자가 된 와타야 리사(綿矢りさ)에게 쏠렸다. 매스컴의 집중 응원 속에 이 신예 작가가 쓴 『차고 싶은 등짝(蹴りたい背中)』은 무라카미 류의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76년 75회) 이후 28년 만의 밀리언셀러를 달성하며 또 하나의 기록을 썼다.²²⁾

또 재미있는 것은 수상작가 못지않게 낙선 작가들의 이야기도 화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나오키상〉의 경우, 의외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 작가들에 인색하다는 평을 듣는데,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을 받지 못한 사실이나, 또 한국 독자에게도 사랑받는 히가시노 게이고(東野圭吾)가 〈나오키상〉에 5번 낙선한 끝에 6번째 수상한 이야기는 유명하다. 심지어 9번 낙선해 10번째에 수상한 작가 이야기, 5번 낙선한 이사가 고타로(伊坂幸太郎)가 더 이상 〈나오키상〉 후보에 오르는 것을 공개 거부한 이야기도 화제를 뿌렸다.

대중소설에 주어지는 〈나오키상〉이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스타작가들에게 무심하다는 것은, 이 상의 심사위원들이 문학에 대한 소신과 안목을 견지하고 대중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이다. 바

21) 川口則弘, 『直木賞物語』, バジリコ, 2014, 415~417쪽.

22) 川口則弘, 『直木賞物語』, 위의 책, 428~430쪽; 『芥川賞物語』, バジリコ, 2013, 254~257쪽.

로 이러한 심사위원의 태도와 심사평이 이 두 상의 화제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일본 문학상의 경우 심사위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거의 종신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아쿠타가와·나오키상> 역시 짧게는 십 수 년, 길게는 47년간이나 재임하는 심사위원도 있다. 따라서 문학계 종사자나 이 두 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라면 심사위원의 면면을 꿰고 있고, 『분게이슌주』와 『올로미모노』를 통해 공개되는 심사위원 평에도 관심을 쏟는다. 다시 말해,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대해 감론을박하는 또 하나의 비평 무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심사위원들은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내고 때에 따라서는 신랄한 악평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 문학상의 심사평이 후보작들에 대해 우호적이고, 노고를 치하하는 인사말로 점철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솔직한 심사평은 때때로 해당 작가와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또 좋은 화젯거리가 된다. 일례로 2003년 요코야마 히데오(横山秀夫)의 128회 <나오키상> 낙선과 심사평을 둘러싼 논쟁, 이후 <나오키상>과의 결별선언은 한동안 신문 잡지의 매스컴을 장식했다.

이렇게 화제가 끊이지 않은 두 상의 세계는 소설, 에세이, 심지어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소재로까지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쓰쓰이 아스타카(筒井康隆)의 소설 『커다란 도움닫기(大なる助走)』(1977년)는 <나오키상>에 목을 매는 문단의 실패를 풍자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줄거리는 낙선에 불만을 품은 신진 작가가 심사위원들을 차례로 살해한다는 쇼킹한 내용인데, 작가 자신 실제로 <나오키상>에 몇 번이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는데다, 소설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이 실제 누구누구를 모델로 했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화제를 뿌렸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을 연재한 곳이 바로 『별책분게이슌주(別冊文藝春秋)』였다는 사실이다. 자사가 주관하는 문학상을 그토록 신랄하게 야유한 소설을 버젓이 연재하는 배포가 놀랍다. 이 소설은 10년 후 1989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두 상의 100회 기념일에 전격 공개되며 또 한 번의 화제를 낳았다. 최고 권위의 문학상에 대한 불신과 야유를 한껏 발산하면서도 이것이 두 상의 명성에는 전혀 해를 미치지 않고, 오히려 유명세를 올려주는 유머어로 종결된 셈이다. 이 점, 일단 자리에 오르면 웬만한 모순과 폐단이 있어도 잘 허물어뜨리지 않는 일본 사회의 특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두 상에 대한 매스컴 열기의 하이라이트는 최종심사 발표와 시상식 날이다. 최종심사 장소는 도쿄에 있는 신키라쿠(新喜楽)로, 1875년에 창업한 일본 3대 요정 중의 하나다. 1층에서는 <아쿠타가와상>이, 2층에서는 <나오키상> 심사가 동시에 열리는데, 심사가 끝나면 심사과정 일체를 보조하는 분게이슌주 직원들이 수상자와 낙선 작가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동시에 2층 대기실에 모인 100여 명의 보도진 앞에서 수상작을 발표한다.²³⁾ 결과를 들은 보도진들은 수상작가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쿄회관(현재는 공사중으로 제국호텔)으로 일제히 달려간다. 1년에 두 차례 반복되는 이 지역의 풍물시다. 또 발 빠른 보도진들은 수상이 유력시되는 작가의 거처에서 진을 치며 작가가 수상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을 카메라에 담는데, 이 모든 게 마치 올림픽 결승전 취재를 연상케 한다.

수상작 발표 한 달 후에 열리는 <아쿠타가와·나오키상>의 합동 시상식과 기념 파티는 더 없이 성대하다.

23) 최종 심사일의 풍경에 대해서는 大河原英與, 「回想 芥川・直木賞の舞台裏一候補選出から発表まで」, 『ユリイカ』 36: 8, 青土社, 2004, 77-85쪽 참조.

2022년 2월, 166회 시상식은 도쿄 제국(帝國)호텔에서 개최되었다. 1890년에 준공된 이 최고급 호텔에서 관계자, 보도진, 출판사 임원과 편집인, 작가와 문화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해 명함을 교환하고 사교 모임을 갖는 풍경이 2022년 코로나 시국에도 변함없이 펼쳐진 것이다. <이상문학상>과 <현대문학상>의 조출한 시상식 장면이 다시 한 번 떠오르는 대목이다. 이 날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는 현직 공무원인 스나카와 분지(砂川文次)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단상에서 기합을 넣는 독특한 제스처가 화제를 낳았다. 또 <나오키상>은 이마무라 쇼고(今村翔吾)와 요네자와 호노부(米沢穂信)의 더블 수상이었다. 특히 이마무라 씨는 전직 댄스 강사로 현재 서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5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인데다 수상 후 TV 출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학 시장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래도 저래도 욕을 먹는 문학상 제도지만, 일본의 문학상은 이렇게 오타쿠들의 뜨거운 응원과 폭 넓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문학과 출판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쿠타가와·나오키상> 같은 전통의 유력 문학상을 뛰어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신흥 문학상들의 선전 역시 일본 문학상의 앞날을 밝게 한다. ‘타도 나오키’를 외치며 서점원들이 직접 뽑는 <서점대상>, 회당 1만에 가까운 응모작이 모인다는 <넷소설대상> 같은 새로운 문학상의 앞날도 흥미롭다.

V. 나가며

문학상이 좋은 작가와 작품을 제대로 발굴하고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공정하게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또 출판 상업주의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현상 역시 경계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문학상의 풍토를 보면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예술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엄숙주의에 매몰돼, 정작 독서 대중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네이버 <지식IN> 코너에 “이상문학상이 아직 있나요?” 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아예 <이상문학상> 자체를 모르는 대학생이 적지 않은 것이 한국 문학상의 현주소이다.

이웃 나라 일본 문학상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판 상업주의, 출판 권력의 독점과 불공정성 문제를 노정하고 있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주요 문학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학상 수상작이 독서목록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인기와 권위는 문학상 발표 소식이 국영방송 뉴스 속보로 다루어지고, 각종 TV 보도와 교양·예능 프로그램, 신문과 잡지, 심지어 인터넷 방송에서까지 수시로 언급되는 문화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아쿠타가와·나오키상> 같은 전통의 문학상은 운영사인 분계이순주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 권위와 영향력은 문단과 마스크, 문화계가 열띤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좋은 문학상은 작가와 독자, 출판사와 문단을 이어주고, 문학과 출판계, 독서시장의 발전을 뒷받침한다. 한국 문학상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이다. 침체된 한국 문학상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주장하는 문학상의 공정한 운영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에 더해 독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치열하게 모색되어야 한다. 독자 대중이 떠나가는데 문학만이 고고하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참고문헌〉

- 김난주, 「일본 문학상 〈서점대상(本屋大賞)〉 - 성공과 한계, 그리고 서점에서 책을 파는 즐거움 -」, 『인문학 연구』 126,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김연수, 「상업주의 그늘 짙게 드리운 문학상과 작가」, 『출판저널』 253, 대한출판문화협회, 1999.
- 박민정 외,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젊은 작가 좌담)」, 『실천문학』 119, 실천문학사, 2015.
- 박은혜, 「문학상의 새로운 진화와 ‘젊은 작가상」, 『리터러시연구』 11: 4, 한국리터러시학회, 2020.
- 이권우, 「문학상 둘러싼 잡음 왜 끊이지 않나」, 『출판저널』 94, 1991.
- 이동희, 「문단의 권력 또는 공해」, 『현대소설연구』 1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이승하, 「문학상이 공정하지 않으면 한국문학의 발전은 없다 - 아쿠타가와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실천문학』 2019년 봄호, 2019.
- 川口則弘, 『芥川賞物語』, バジリコ, 2013.
- 川口則弘, 『直木賞物語』, バジリコ, 2014.
- 大河原英與, 「回想 芥川・直木賞の舞台裏 - 候補選出から発表まで」, 『ユリイカ』 36: 8, 青土社, 2004.
- 김석, 「조선일보는 친일문인 기리는 동인문학상 폐지하라」, KBS NEWS, 2011.11.2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34939&ref=A>(검색일 : 2022.5.30).
- 보관, 「이상문학상 심사에 문제 있어. 과도한 자사 문예지 밀어주기부터 수상에 대한 비판까지」, 『뉴스페이퍼』, 2021.01.09.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55>(검색일 : 2022.4.30).
- 이민우, 「22년 제45회 이상문학상 선정작 발표. 심사 제도 개선 이루어져」, 『뉴스페이퍼』, 22.1.5.
<http://www.news-paper.co.kr>(검색일 : 2022.4.30).
- 정진영, 「깜깜이 문학상 그들만의 리그인가」, 『문화일보』, 2020.1.13. <http://www.munhwa.com/news/>
 (검색일 : 2020.3.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정한 문학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문학상 운영실태 조사 연구개요」, 2021.
 12. file:///C:/Users/DKU/Downloads/(검색일 : 2022.5.30).
- 홍성희, 「이름과 이름과 이름 들」, 『문장웹진』 2021년 2월호.
<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7787>(검색일 : 2022.5.25).
- 業界動向, 「出版業界ランキング」. 2021. <https://gyokai-search.com/4-hon-uriage.htm>(검색일 : 2022.5.1).
- 「直木賞のすべて」. <https://prizesworld.com/naoki/wins/>(검색일 : 2022.3.7).

* 이 논문은 2022년 6월 2일에 투고되어,
2022년 6월 21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7월 7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7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Korean and Japanese Literary Awards - Issues and Topics Surrounding Publisher Literary Awards -

Kim, Nanju*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literary awards of publishers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There are hundreds of literary awards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but most of the influential literary awards that have exerted influence on the literary circles and literary markets are those operated by large publisher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biggest issues surrounding the literary award system are integrated into the issue of fairness. In particular, there are loud voices of criticism against the practice of publishers giving their literary awards to the works published by them. Meanwhile, Japanese literature awards are no different from South Korean ones in the monopoly and bias as such. The ratios of 'self-awarding' of the prestigious literary awards operated by Kōdansha(講談社), Shūeisha(集英社), and Shinchōsha(新潮社), including <Akutagawa / Naoki Award> of Bungeishinjū(文芸春秋) are mostly close to 4~50%. However, there are a difference in the responses of the cultural communities' of the two countries to the problems of publishers' literary awards such as monopoly and unfairness. That is, whereas South Korean literary circles have continued constant and pressing criticism of the unfair actual situation of literary awards, in the case of Japan, there is a strong tendency to recognize the commercial nature of publishers' literary awards as a pre-established fact and view them as a 'cultural product'. This attitude toward the literary awards is well revealed in the reporting behavior of the Japanese media to deal with the literary awards.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case of the <Akutagawa/Naoki Awards>, the Japanese society's interest in and attitude toward the literary awards were examined through the media's enthusiasm for reporting on the awards ranging from the selection of nominated works, the announcement of the award winners, the judges' reviews and awards ceremony, and the personal identity of the author. The foregoing is considered to be something that must be referred to find out what efforts should be made by the South Korean literary awards that sunk into a swamp of stagnation to arouse public interest and response.

[Keywords] Korean Literary Awards, Japan Literary Awards, Awards of Publishers, Naoki Award, Akutagawa Award

* Dankook Univ. Assistant Professor for Research

